

호주-안전 가디언즈

2025년 직무전문화 국외단기연수 결과보고

2025. 7.



강원소방
[안전가디언즈]

목 차

I	국외연수 개요	2
II	연수내용	6
	① 소방 박물관	6
	② 리튬파워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6
	③ 시드니 소방서	7
	④ RFS 소방청	8
	⑤ 블루마운틴 소방서	9
	⑥ 울런공 소방서	9
	⑦ 고스포드 소방서	10
III	연수총평 및 정책 현지화 방안	11
IV	연수관련 사진	14

I 국외연수 개요

- (연수단명) 안전 가디언즈(安全 Guardians)
- (연수일정) 2025. 6. 23.(월) ~ 7. 2.(수) / 10일
- (연수국) 호주(시드니, 고스포드, 울런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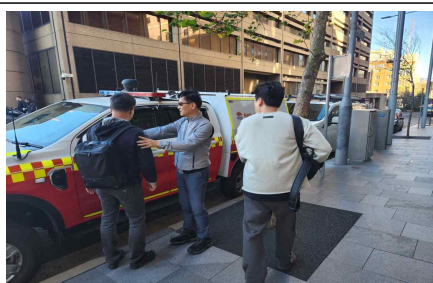
호주 (Australia)

- ① 수 도: 캔버라
- ② 면 적: 7,692,024 km²
- ③ 기 후: 온화한 대륙성기후(서부 40% 및 북부 80%: 열대성 / 그 외: 온대성)
- ④ 비 고
 -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영연방 왕국으로, 오세아니아에서 뉴질랜드와 더불어 남태평양 역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선진국이자 지역 강국이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륙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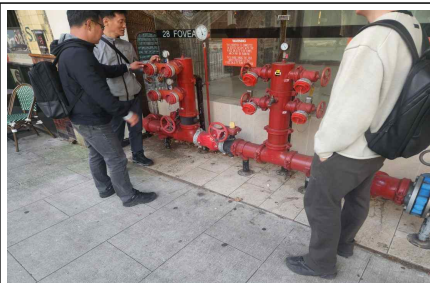


○ (연수방법)

- (현장 방문) 소방청, 주요 소방서 등 운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시스템, 재난 대응 및 훈련 과정을 관찰, 체험하고 학습
- (사례 분석 및 토론) 선진 호주 소방 정책, 재난대응시스템, 프로그램 등을 토론, 분석하여 향후 강원소방 실정에 맞는 화재예방, 대응매뉴얼 개선 방안 모색



도심 속 소방차량 분석



도심 속 소방시설 분석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 영사

○ (연수목적)

- 결혼, 이민, 체류 등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소방정책 구조 개선을 위해 호주 이민자 소방 정책 성공요인 분석 및 적용 가능성 탐색

우리나라와 호주 외국인 정책 비교 · 분석

□ 이민자 선발기준

- ◆ (대한민국) 단순 노동자와 난민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며, 영주권 취득 기준도 상대적으로 엄격하나 고학력 전문직과 투자자는 선호
- ◆ (호 주) 점수제 기반으로 기술이민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부족 직업군에 초점을 맞춰 학력, 경력, 영어 능력을 평가. 기술 이민자는 전체 이민자의 약 73%를 차지하며, 유학생 영주권 취득 경로 제공

우리나라 지역별 외국인 현황 (2024년 기준 / 강원도 1.75%)	우리나라 외국인 국적별 비율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이민자 직업군 (2024년 기준)																																																												
<table border="1" style="display: none;"> <caption>우리나라 지역별 외국인 현황 (2024년 기준)</caption> <tr><th>지역</th><th>비율 (%)</th></tr> <tr><td>서울</td><td>9.2</td></tr> <tr><td>경기</td><td>5.5</td></tr> <tr><td>인천</td><td>4.9</td></tr> <tr><td>강원도</td><td>1.75</td></tr> <tr><td>충청남도</td><td>6.2</td></tr> <tr><td>충청북도</td><td>3.8</td></tr> <tr><td>전라북도</td><td>3.5</td></tr> <tr><td>전라남도</td><td>2.8</td></tr> <tr><td>경상북도</td><td>2.9</td></tr> <tr><td>경상남도</td><td>4.2</td></tr> <tr><td>부산</td><td>3.2</td></tr> <tr><td>대구</td><td>2.9</td></tr> <tr><td>울산</td><td>3</td></tr> <tr><td>제주도</td><td>2.7</td></tr> </table>	지역	비율 (%)	서울	9.2	경기	5.5	인천	4.9	강원도	1.75	충청남도	6.2	충청북도	3.8	전라북도	3.5	전라남도	2.8	경상북도	2.9	경상남도	4.2	부산	3.2	대구	2.9	울산	3	제주도	2.7	<table border="1" style="display: none;"> <caption>우리나라 외국인 국적별 비율 (2024년 기준)</caption> <tr><th>국적</th><th>인구</th><th>비율 (%)</th></tr> <tr><td>중국</td><td>~9,000,000</td><td>~35</td></tr> <tr><td>베트남</td><td>~3,000,000</td><td>~12</td></tr> <tr><td>태국</td><td>~2,000,000</td><td>~8</td></tr> <tr><td>미국</td><td>~1,500,000</td><td>~6</td></tr> <tr><td>우즈베키스탄</td><td>~1,000,000</td><td>~4</td></tr> </table>	국적	인구	비율 (%)	중국	~9,000,000	~35	베트남	~3,000,000	~12	태국	~2,000,000	~8	미국	~1,500,000	~6	우즈베키스탄	~1,000,000	~4	<table border="1" style="display: none;"> <caption>우리나라 외국인 이민자 직업군 (2024년 기준)</caption> <tr><th>직업군</th><th>비율 (%)</th></tr> <tr><td>유학생 및 연수생</td><td>16.5</td></tr> <tr><td>농업 및 어업</td><td>66.9</td></tr> <tr><td>서비스 및 판매직</td><td>40.3</td></tr> <tr><td>전문직</td><td>15.8</td></tr> <tr><td>단순 기능직</td><td>84.2</td></tr> </table>	직업군	비율 (%)	유학생 및 연수생	16.5	농업 및 어업	66.9	서비스 및 판매직	40.3	전문직	15.8	단순 기능직	84.2
지역	비율 (%)																																																													
서울	9.2																																																													
경기	5.5																																																													
인천	4.9																																																													
강원도	1.75																																																													
충청남도	6.2																																																													
충청북도	3.8																																																													
전라북도	3.5																																																													
전라남도	2.8																																																													
경상북도	2.9																																																													
경상남도	4.2																																																													
부산	3.2																																																													
대구	2.9																																																													
울산	3																																																													
제주도	2.7																																																													
국적	인구	비율 (%)																																																												
중국	~9,000,000	~35																																																												
베트남	~3,000,000	~12																																																												
태국	~2,000,000	~8																																																												
미국	~1,500,000	~6																																																												
우즈베키스탄	~1,000,000	~4																																																												
직업군	비율 (%)																																																													
유학생 및 연수생	16.5																																																													
농업 및 어업	66.9																																																													
서비스 및 판매직	40.3																																																													
전문직	15.8																																																													
단순 기능직	84.2																																																													

□ 사회 통합 프로그램

- ◆ (대한민국) 온라인 화상교육,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등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언어 및 문화 교육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h4 style="text-align: center;">KIIP(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자가 우리말과 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께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
--	--

- ◆ (호 주) 성인이민자 영어 교육 프로그램(AMEP) 등 체계적인 정착 지원과 다문화 교육을 통해 이민자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며, 지방 이민 프로그램(DAMA)을 통해 특정 지역에 이민자를 유치하고 정착을 장려

	<h4 style="text-align: center;">호주의 지정 지역 이민 협약(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 DAMA)</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약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및 노동 시장 조건에 맞춰 해외 노동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지 역: 시골 지역 및 일부 도시화된 지역. - 혜 택: 영어, 연봉, 나이 조건 완화 등 유연한 이민 정책 제공. - 직업군: 관광, 농업, 호텔, 요리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 포함
--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등 필연적인 전기차 수요 증가로 리튬 배터리 화재 대응 방안 강구

우리나라와 호주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 화재 분석

□ 친환경 에너지 및 전기차 화재 사례 비교

대한민국		호 주	
ESS 화재	전기차 화재	ESS 화재	전기차 화재
2017~2024년: 28건 (태양광 연계 ESS: 18건)	2018~2023년: 115건	2019년: 총9건 (태양광 연계형 ESS과열)	2010~2023년: 4건

테슬라 메가팩 화재 (2021년)	시드니 공항 화재 (2025년)
 <p>MOORABOOL FIRE DESTROYS LITHIUM BATTERY THE VICTORIAN BIG BATTERY PROVIDES 'CRUCIAL' ENERGY STORAGE NEWS</p>	 <p>FIRE RESCUE</p>
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메가팩에서 화재 발생	시드니 공항 주차장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

□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 조치

대한민국 및 호주	
배터리 인증제 도입	정부가 직접 배터리 안전성 시험 및 인증, 2025년 2월부터 시행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강화)	배터리 온도, 충전상태 등 실시간 모니터링
화재 대응 체계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정보 소방관서 제공
스마트 충전기 보급	충전 중 과충전 방지하고 배터리 상태 제어 할 수 있는 충전기 보급
배터리 기술 개발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 친환경 에너지 화재 예방 정책 차이점

공 통 점			
	ESS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 체계 구축	기술 개발 및 지원
호주	① ESS 설치 기준과 운영 환경 관리 강화 ② 대규모 배터리 안전성 기술 개발	① 안전기준 제정 등 소방기준 강화 ② 초기 대응 매뉴얼 개선 등 방안 마련	① 배터리 안전 기술 연구 지원
한국	① ESS 화재원인 분석 후 설치 및 운영 기준 개정 ② 배터리 충전을 제한과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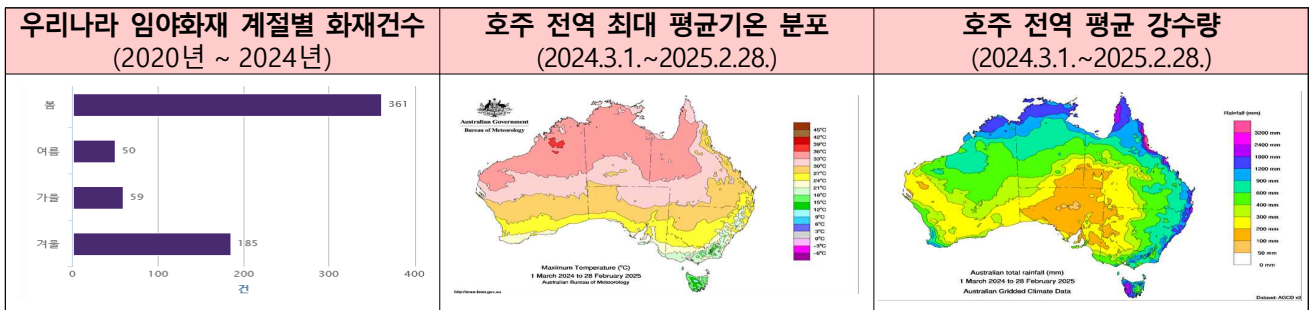
차 이 점	
정책 구체성	-호주: ESS 설치 세부기준 마련 -한국: 일부규정 모호 및 지하설치 허용 등
화재예방기술 적용	-호주: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와 같은 기술 활용한 예방조치 강조 -한국: OFF-가스 감지 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 도입 논의 중

- 호주와 우리나라의 산불 대응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영동지방 대형 산불 예방 및 대응 방안 강구

우리나라와 호주 산불화재 비교·분석

□ 산불시기 기후특성

- ◆ (대한민국) 동해안 지역 봄철 고온·건조 및 3월~5월 사이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하며, 이 기간에 상대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짐
- ◆ (호주) 남반구에 위치하여 북반구와 반대로 12월~2월까지는 여름, 6월~8월은 겨울, 여름인 12월~2월 사이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이 시기 인도양에서 부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인 몬순이 산불 확산을 더욱 가속화 시킴



□ 산불화재 사례 비교

- ◆ (대한민국) 2022. 3. 4.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강원도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에서 동시다발적 발생



- ◆ (호주) 2019. 9. 2. 호주 남동부 지방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2020. 2. 3. 진화되었으며, 여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만나 호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 (연수 방법)

- (현장 방문) 소방청, 주요 소방서 등 운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시스템, 재난 대응 및 훈련 과정을 관찰, 체험하고 학습
- (사례 분석 및 토론) 선진 호주 소방 정책, 재난대응시스템, 프로그램 등을 토론, 분석하여 향후 강원소방 실정에 맞는 화재예방, 대응매뉴얼 개선 방안 모색

○ (연수자 명단)

소 속	직 급	성 명	역 할	임 무
환동해 특수대응단	소방령	함남식	단 장	업무총괄
고성소방서	소방경	김관래	계 획	계획수립
강릉소방서	소방장	허 균	통 역	현지통역
동해소방서	소방교	조용익	총 무	기록유지

○ (세 부 일 정)

일 자		주요일정	지 역	이동수단
6.23.(월)	1일차	■ 시드니 도착 & 숙소 체크인	시드니	대중교통
6.24.(화)	2일차	■ 소방박물관	시드니	대중교통
6.25.(수)	3일차	■ 리튬파워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시드니	대중교통
6.26.(목)	4일차	■ 시드니 소방서	시드니	대중교통
6.27.(금)	5일차	■ RFS 소방청	시드니	대중교통
6.28.(토)	6일차	■ 블루마운틴 소방서	블루마운틴	대중교통
6.29.(일)	7일차	■ 울런공 소방서	울런공	대중교통
6.30.(월)	8일차	■ 고스포드 소방서	고스포드	대중교통
7.1.(화)	9일차	■ 출국준비	시드니	대중교통
7.2.(수)	10일차	■ 인천도착	인천	대중교통

II 연수내용

1 소방박물관

- 방문일자: 2025. 6. 24.(화)
- 방문장소: 펜리스 소방박물관(Museum of Fire)
- 연수내용
 - 18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다양한 소방차(손수레, 마차, 증기기관, 초기 엔진, 현대 소방차 등) 관람
 - 호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소방 역사와 소방관들의 활약상을 다루는 전시 관람
 -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소방차와 장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기술 변화와 함께 소방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 수 있는 계기 마련



소방박물관 내부



소방박물관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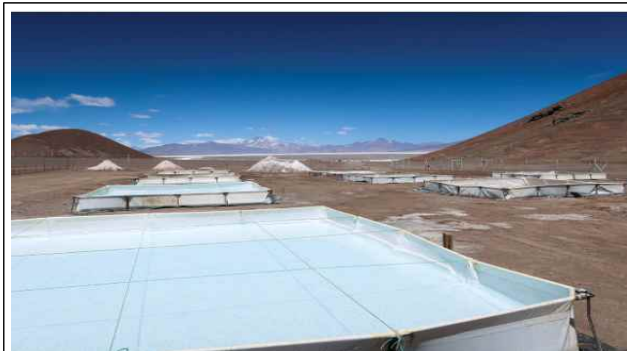
2 리튬파워인터내셔널주식회사

- 방문일자: 2025. 6. 25.(수)
- 방문장소: 리튬파워 인터내셔널 주식회사(LPI)
- 연수내용
 - 2015년에 설립된 리튬파워인터내셔널은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둔 리튬 전문 광산 개발 기업으로 대규모 고품질 리튬 자원을 개발 중

- 상기 주식회사는는 산업계 표준과 법적 기준에 따라 위험 평가, 현장 안전 교육, 리튬화재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

산업계 표준명 / 법령	적용내용
AS/NZS 5139	배터리 시스템(ESS) 설치·안전 기준
AS/NZS 1841, 1850	소화기 구조·성능·인증 기준
AS 2444	소화기·소화포 선택 및 설치 위치 기준
NSW Product Safety Standard	e-모빌리티·배터리 제품 안전 및 정보 제공 의무화

- 위험평가: 현장 내 리튬 배터리 및 관련 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화재 위험성 평가 실시
- 현장안전교육: 정기적인 비상대응 훈련과 시뮬레이션 진행
- 격리 및 환기: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구획화 및 충분한 환기 설계



리튬 염수 증발 연못



리튬 파워 인터네셔널 사옥

3 시드니 소방서

- 방문일자: 2025. 6. 26.(목)
- 방문장소: 시드니 소방서(Fire and Rescue NSW City of Sydney Fire Station)
- 연수내용
 - 전기차 화재대응: 시드니 소방서는 전기차 및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에 대해 전문 대응팀 운용 중
 - 최근 시드니 공항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례처럼, 화재 원인 조사와 진압, 안전 기술 연구 병행

- 이민자 소방정책: 다양한 언어로 소방 안전 안내문, 대피법, 화재 신고 방법 등을 제공하며, 화재 신고 시 통역사를 통한 119 신고 지원, 다국어 피난 안내도 및 소방시설 사용법 영상 보급 등 이민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시드니 소방서 차량 확인



시드니 소방서 차량

4

RFS 소방청

- 방문일자: 2025. 6. 27.(금)
- 방문장소: RFS 소방청 (NSW Rural Fire Service)
- 연수내용
 - 산불 진압: NSW 내 발생하는 산불에 대한 신속한 진압이 핵심 임무로, 대형 산불 발생 시 전국 단위 지원 및 협력 담당
 - 예방 활동: 산불 위험 지역의 사전 점검, 예방적 소각, 임도(산불 진입로) 관리, 지역사회 대상 산불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 위성·드론·GIS 활용: 실시간 산불 감시를 위해 위성, 드론, 지리정보시스템 (GIS)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산불 발생과 확산을 조기 감지 및 대응
 - 3단계 경보 시스템: '권고(Advice)', '주시 및 행동(Watch and Act)', '비상 경보(Emergency Warning)'의 3단계 산불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 위험 수준에 따라 주민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
 - 자원봉사자 운영: 7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소속되어 산불 진압, 예방, 교육, 지역사회 지원 등 다양한 임무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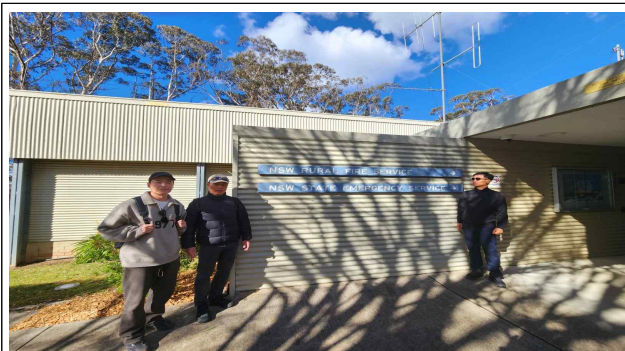
RFS 소방청 방문(1)



RFS 소방청 방문(2)

5 블루마운틴소방서

- 방문일자: 2025. 6. 28.(토)
- 방문장소: 블루마운틴 소방서 (Blue Mountains Rural Fire Service)
- 연수내용
 - 산불 전문 대응: 뉴사우스웨일스 주 소방청, 산불복구센터와 연계해 산불 예방, 임도 관리, 대형 산불 진압에 특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임도 및 방화선: 산불 진입로(임도) 확보, 방화선 구축, 헬기·진화대 투입 등 대규모 산불 대응 역량이 매우 높음



블루마운틴 소방서 방문



블루마운틴 소방서 방문(2)

6 울런공소방서

- 방문일자: 2025. 6. 29.(일)
- 방문장소: 울런공 소방서 (Wollongong Fire Station)

○ 연수내용

- 외국인 노동자 안전: 울런공은 산업도시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외국인 기숙사·공장 대상 소방안전관리, 다국어 소방 교육, 소방시설 사용법 안내, 비상대피 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
- 협의체 운영: 외국인 소방안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지도와 관리자 워크숍, 키맨(Keyman) 교육 등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



울런공 소방서 방문



울런공 소방서 전경

7 | 고스포드소방서

○ 방문일자: 2025. 6. 30.(월)

○ 방문장소: 고스포드 소방서(Gosford Fire Station)

○ 연수내용

- 교외 및 교통 요충지 대응: 고스포드는 교외 지역 및 고속도로가 많아 전기차 화재, 교통사고 구조에 특화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음
- 산불-도시 경계 관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산불 예방, 임도 관리, 대피 안내 등 산불 대응에 적극적



고스포드 소방서 전경



고스포드 소방서 장비확인

II 연수 총평 및 정책 현지화 방안

○ (이민자 소방정책의 포용성과 실효성)

- **다문화 사회 대응:** 시드니, 울런공 등 NSW 주요 도시 소방서는 다양한 언어로 소방 안전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화재 신고 시 통역 지원 등 이민자 친화적 정책을 적극 시행
- **지역사회 협력:**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소방 교육, 대피 안내, 실습훈련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안전 역량 함양
- **정책의 시사점:** 국내에서도 다문화·외국인 거주지역에 특화된 소방정책과 커뮤니티 기반 안전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
- **정책 현지화 방안**

정 책 명	호주 현황 및 특징	기대효과
이민자 맞춤형 안전교육 의무화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언어별 안전교육 제공, 이수 의무화 ¹⁾	언어 장벽 해소, 화재 등 사고 예방 강화
안전교육 이수 확인 후 취업 허가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비자 발급 및 취업 허가와 연계	현장 안전 확보, 사고 감소
이민자 핫라인 및 상담센터	다양한 언어로 운영되는 24시간 지원센터, 익명 신고 가능	권리 침해·안전 문제 신속 대응
현장점검 및 법적제재 강화	고용주가 안전교육 미이행 시 강력한 처벌 및 벌금 부과	고용주 책임 강화, 실효성 확보

1)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일부 외국인 노동자(E-9, H-2 등)에게 의무화되어 있으나, 언어·문화 맞춤형 교육자료 부족

○ (전기차 화재 대응의 전문화와 첨단화)

- **전문 대응체계 구축:** 전기차 및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특화된 진압 매뉴얼, 장비,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고전압·재발화 등 신기술 위험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훈련 진행
- **실무 중심의 대응:** EV 식별, 배터리 손상 차량의 격리 관리, 특수 소화기 사용 등 현장 실무에 기반한 대응 역량 인상적
- **정책의 시사점:**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는 국내 상황에서도, 전문 장비 도입과 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가 필요함을 체감
- **정책 현지화 방안:** 파란색 번호판과 별도로, 차량 전면 유리(상단) 또는 범퍼에 부착하는 EV 식별 스티커를 추가 도입하여,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이 차량의 전기차 여부를 즉시 파악 가능

우리나라 EV 번호판 색상 정책과 호주 EV 식별 스티커 제도 비교		
비교대상	대한민국: 파란색 번호판	호주: EV 식별 스티커 제도
식별방식	번호판 전체 색상(파란색) 및 EV 픽토그램	번호판에 별도 부착 스티커(삼각형 등)
부착위치	차량 전·후면 지정 위치(번호판 자체)	번호판 전·후면, 일부는 유리/범퍼 등
시인성	번호판 위치에 따라 가림 가능성 있음	스티커가 눈에 띄는 위치에 별도 부착
응급 대응 활용성	번호판이 훼손되면 식별 어려움	스티커와 금속판으로 이중 식별 가능
기타	행정·주차·통행료 감면 등 행정 목적 병행	오직 응급대응·안전 목적에 집중



우리나라 EV 번호판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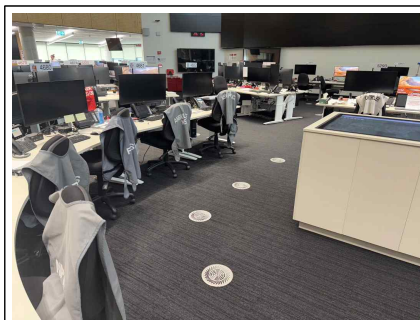
Light vehicle



호주 EV 식별 스티커

○ (산불화재 대응의 통합적 관리와 첨단 기술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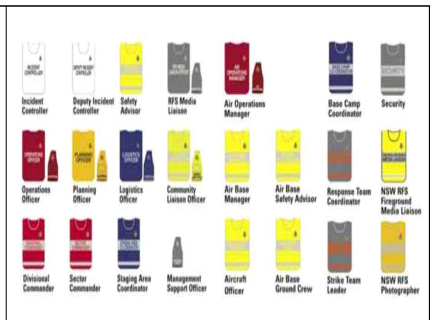
- 예방·감시·진압의 통합: 산불위험 지역에 대한 예방적 소각, 임도 관리, 주민 대상 대피 교육 등 예방-감시-진압이 유기적으로 연계
- 첨단 기술 도입: 위성, 드론, GIS 등 첨단 감시 시스템과 항공 소방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규모 산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 자원봉사자 중심: NSW Rural Fire Service 등은 대규모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산불 대응 역량을 극대화
- 정책의 시사점: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국내 현실에 맞춰, 첨단 기술 도입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산불 대응체계 구축 필요 체감
- 정책 현지화 방안: 통합지휘센터 운영(SOC, State Operations Centre)
 - ① 산불 발생 시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상황실로 집합하여 강원소방 지휘 아래 유기적으로 대응 ↳ 기상청, 전기, 군, 경찰, 교육부 등 유관기관은 조끼 색깔로 구분
 - ② 상황 분석 결과를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유관기관 담당자는 해당 정보를 각 기관의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유함으로써,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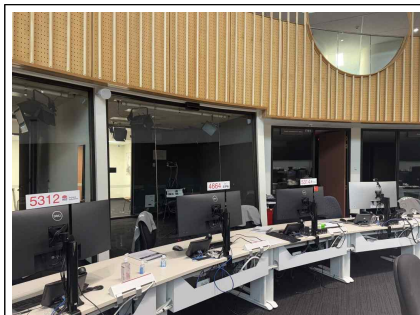
RFS 상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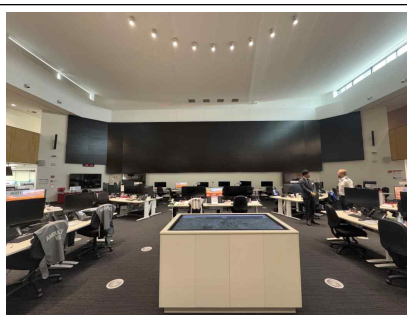
RFS 상황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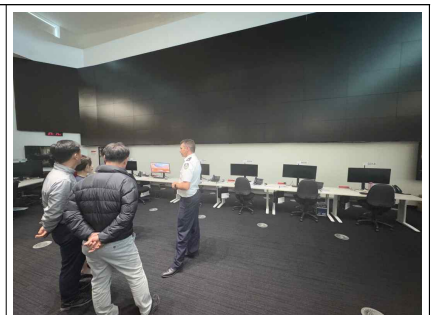
RFS 조끼구분



RFS 상황실 내 유관기관 지정석



RFS 상황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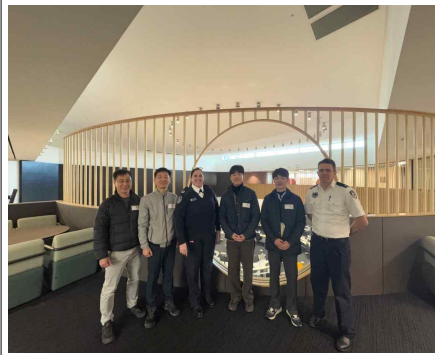


RFS 상황실 모니터

IV 관련 사진



시드니 철도 소방서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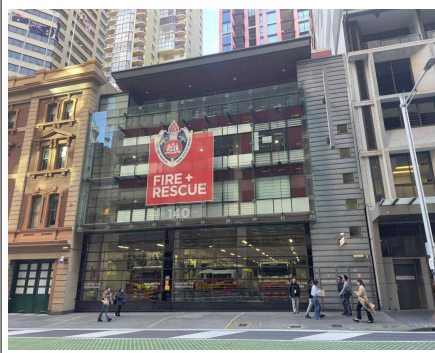
RFS 소방청장 및 직원



시드니 소방서 현판



시드니 소방서 현판(2)



시드니 소방서 전경



시드니 소방서 앞